

간호대학 4학년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과 영향 요인

이월숙¹ · 엄주연¹ · 이태화²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²

Role Transition of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alysis of Predictors for Role Transition

Lee, Worlsook¹ · Uhm, Ju-Yeon¹ · Lee, Taewha²

¹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role transition from a student nurse to a registered nurse among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ir role transition.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with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in four nursing colleges in Seoul,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Four instruments including role transiti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were used and the students' demographics were also collected.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predictors for the role transition. **Results:** A total of 233 nursing students were surveyed and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utilizing 226 participants. Mean point of perceived role transition (5 point scale) was 3.34 ± 0.44 . I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high self-esteem,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ow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and high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 smooth transition ($\text{Adj. } R^2 = .32$, $F = 22.28$, $p < .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role transition from a student nurse to a registered nurse is facilit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grams to improv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o reduce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Key Words: Role transition,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역할과 함께 빠른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와 직접 접촉시간이 많고 여러

보건의료전문직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간호사에게 의료현장에 대한 적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뿐 아니라, 졸업 후 간호실무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간호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그러나 병원간호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간호사 중 16.8%, 신규 간호사 중 33.6%가 이직했으며, 이직 사

주요어: 역할 이행, 간호대학 4학년생,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Corresponding author: Uhm, Ju-Yeon

Department of Nursing, Asan Medical Center, 388-1 Pungnap 2-dong, Songpa-gu, Seoul 138-736, Korea.
Tel: +82-10-2571-2137, Fax: +82-2-3010-6108, E-mail: jyuhm@amc.seoul.kr

Received: Dec 13, 2013 | **Revised:** Feb 6, 2014 | **Accepted:** Mar 10,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유로는 14.5%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 조직의 원활한 인력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신규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이행하는 단계이며, 교육적 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팀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통과 의례적 단계로, 새로운 도전으로 인한 흥분뿐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경험한다[4,5]. 즉,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역할 변화는 좌절, 불안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며, 병원에 입사한 3~6개월 동안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역할 이행에 관한 연구들은 프리셉터십이나 인턴십, 멘토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질적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7, 8]. 호주에서 수행된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연구에서는 이행 프로그램 제공 유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간호대학생들이 팀의 일원으로 실제 간호실무를 경험하는데 있어, 병원의 관리자와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현실적 인식 및 신규 간호사를 위한 문화적, 환경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였다[4]. 국외에서는 이처럼 이행과 관련해 질적 연구 및 중재연구까지 시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역할 이행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간호술기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9,10]. 간호술기에 대한 불안은 간호사 이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reality shock의 원인이 된다[11]. 간호대학생들은 또한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 및 타 분야 의료인들과의 의사소통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14].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전문가로서 이행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있으며[15], Moore, Lindquist와 Katz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 및 스트레스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이처럼 간호실무수행에 대한 불안과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한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은 병원 간호부서의 인력수급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간호관리상 큰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부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호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는 간호사로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17], 이때 느끼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괴감과 좌절감은 순조롭지 않은 간호사 이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간호대학 4학년생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사로서의 이행 정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4]. 특히 졸업 후 1년 이내 사직률이 높고 있다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먼저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사로서의 이행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서의 역할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성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서의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4곳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226명을 편의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 예측변수 20개로 191명이 산출되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IRB-2012-1034).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서울시내 4년제 대학 4개 학교의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학년 전공 수업 후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각 설문지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이 첨부된 연구참여 동의서와 함께 배부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은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분석에 부적절한 7부를 제외한 22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 역할 이행

간호사 역할 이행 도구는 Doody, Tuohy와 Deasy가 개발한 것으로, 간호사로서의 역할 준비, 역할 역량, 조직 및 지지 등 3개 영역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18]. 역할 준비는 간호대학 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공지식, 실습 등을 토대로 한 간호사로서 실무 역할 준비에 대한 항목들이며, 역할 역량은 간호사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에 관한 사항들이다. 조직과 지지는 간호사가 되었을 때 병동관리자 및 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지와 조직에 대한 기여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이 잘 된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고, 연구자(간호학 박사과정 2인)가 간호학 교수 1인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였고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Doody 등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가 개발한 것으로[19], Choi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20]. 4점 척도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을 포함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산출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을 역 환산한 후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2$ 였다.

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도구는 Guernsey가 개발하였고[21], Chang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6개 하위 영역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2].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4) 임상실습수행 불안

임상실습수행 불안 도구는 Kleehammer, Hart와 Keck이 임상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 임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임상 경험 사정 도구로, 환자 간호수행 동안의 의사소통과 간호 처치, 의료진들과의 대인관계, 교수진들과의 상호작용의 3가지 영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3].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임상실습수행 불안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1인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였고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4. 자료분석

취합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과 역할 이행의 하부영역,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기술통계로 표시하였다.
- 간호사 역할 이행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불안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26명으로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2.9세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210명(9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13명(50.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편입학 학생의 비율은 23명(10.2%)이었고, 145명(64.2%)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졸업 후 계획은 211명(93.4%)이 병원 취업을 선택하였으며, 198명(87.6%)이 취업이 확정되었다. 인턴십을 한 경우가 76명(33.6%)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15명(6.6%)만이 '매우 허약하다'라고 응답하였

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간호사로서 소명의식, 혹은 사명감을 가지고'가 64명(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 60명(26.5%), '성적에 맞추어서'가 55명(24.3%), '주위사람의 권유'가 33명(14.6%)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은 동아리 활동 유무 및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종교, 연령, 인턴십, 간호학 선택동기 등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가 평균 3.41점으로, 하지 않은 경우(평균 3.22점)보다 이행 정도가 높았다($t=3.02, p=.003$). 본인이 인지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평균 3.45점)인 경우 '보통'(평균 3.21점) 및 '허약'(평균 3.01점)에 비해, 그리고 '건강'(평균 3.39점)인 경우 '허약'에 비해 이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6.39,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ole Trans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Age (year)			22.9±2.00		
Gender	Female	210 (92.9)	3.33±0.42	-1.62	.107
	Male	16 (7.1)	3.51±0.62		
Religion	Yes	113 (50.0)	3.38±0.41	-1.22	.222
	No	113 (50.0)	3.31±0.47		
Transferred to other university	Yes	23 (10.2)	3.32±0.46	0.22	.824
	No	203 (89.8)	3.34±0.44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school activity	Yes	145 (64.2)	3.41±0.41	3.02	.003
	No	81 (35.8)	3.22±0.46		
Average school score	≥ 3.5	140 (61.9)	3.32±0.47	-0.83	.409
	< 3.5	86 (38.1)	3.37±0.38		
Plan after graduation	Working in a hospital	211 (93.4)	3.35±0.44	1.10	.271
	Others	15 (6.6)	3.22±0.51		
Acceptance in a job	Yes	198 (87.6)	3.34±0.44	0.02	.981
	No	28 (12.4)	3.34±0.44		
Participation in internship programs	Yes	76 (33.6)	3.37±0.46	0.66	.509
	No	150 (66.4)	3.33±0.43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healthy ^a	62 (27.4)	3.45±0.37	6.39	< .001 a > c & d, b > d
	Healthy ^b	98 (43.4)	3.39±0.43		
	Average ^c	51 (22.6)	3.21±0.45		
	Fragile ^d	15 (6.6)	3.01±0.49		
Motive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High employment rate	60 (26.5)	3.24±0.48	1.62	.171
	Vocation	64 (28.3)	3.43±0.42		
	Recommended by close persons	33 (14.6)	3.38±0.36		
	Depending on the test score	55 (24.3)	3.31±0.42		
	Others	14 (6.2)	3.36±0.44		

2.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4 ± 0.44 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는 역할 역량 3.57 ± 0.51 점, 조직과 지지 3.37 ± 0.50 점, 역할 준비 2.93 ± 0.55 점 순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26 ± 0.38 점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5 ± 0.39 점이었다. 임상실습수행 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2.83 ± 0.62 점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5점 만점)에 대한 총 평균은 3.35 ± 0.64 점이었으며, 교우관계 만족도 3.78 ± 0.73 , 교수 만족도 3.29 ± 0.80 점, 이론수업 만족도 3.24 ± 0.82 점, 임상실습 만족도 3.08 ± 0.89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26)

Variables	M±SD
Role transition (overall)	3.34 ± 0.44
Role preparation	2.93 ± 0.55
Role competence	3.57 ± 0.51
Organization and support	3.37 ± 0.50
Self-esteem	3.26 ± 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75 ± 0.39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2.83 ± 0.62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verall)	3.35 ± 0.64
Friends	3.78 ± 0.73
Professors	3.29 ± 0.80
Lectures	3.24 ± 0.82
Clinical practicum	3.08 ± 0.89

3.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계

연구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와 상관성은 자아존중감($r=.36, p<.001$)과 대인관계능력($r=.34, p<.001$), 교우관계만족도($r=.24, p<.001$), 교수 만족도($r=.35, p<.001$), 이론수업 만족도($r=.37, p<.001$), 임상실습 만족도($r=.40,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임상실습수행 불안($r=-.37,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4.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한 관련 요인

연구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에 대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동아리 활동 유무와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교우관계 만족도, 교수 만족도, 이론수업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선택하여 전진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p<.05$)를 보인 동아리 활동 유무는 포함하였으나,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특정 그룹의 대상자수 제한으로 제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가정을 검정한 결과 회귀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유의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37$ 에서부터 $.40$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설명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681 \sim .858$ 이었고, 분산팽창요인도 $1.165 \sim 1.468$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 분석결과에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어 회귀분석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28, p<.001$), 모형의 적합도는 $\text{Adj. } R^2=.32$ 로 산출되어 5개 요인이 간호사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약 32.1%였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임상실습 만족도였으며, 임상실습수행 불안, 자아존중감, 이론수업 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로서 준비를 마치고 간호사 국가시험만을 남겨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이행 정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사 역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4 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역할 역량이 3.57 점, 조직과 지지가 3.37 점, 역할 준비가 2.93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Doody 등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18]에서 역할 역량을 가장 높게, 역할 준비를 가장 낮게 인지한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Role Transition and Variables influencing Role Transition

(N=226)

Variables	SE	IR	ACP	SF	SP	SL	SCP
RT	.36	.34	-.37	.24	.35	.37	.40
<i>p</i>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RT=Role transition, SE=Self-esteem, IR=Interpersonal relationship, ACP=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SF=Satisfaction with friends, SP=Satisfaction with professors, SL=Satisfaction with lectures, S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ceived Role Transition among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N=226)

Variables	B	β	t (<i>p</i>)
(Constant)	52.26		5.39 (<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3.11	.22	3.35 (.001)
Self-esteem	0.59	.18	2.82 (.005)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0.26	-.21	-3.46 (.001)
Satisfaction with lectures	2.55	.17	2.52 (.01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23	.13	2.02 (.045)

$R^2 = .58$, Adj. $R^2 = .32$, $F = 22.28$, $p < .001$

또한 Sharif와 Masoumi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불안을 느끼는데[1] 간호대학생들은 시간관리능력, 윤리적 판단력, 교육능력 등 간호사로서 역량은 잘 준비되었다고 인지하는 반면, 적절한 교육과 실습, 토론 등을 통해 실제 임상현장(real world)에서의 간호사 역할 수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동아리 활동과 지각한 건강상태였다.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와 스스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동료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할 때 동아리 활동이 지지체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만을 포함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술모임,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교내, 교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대학생의 지지체계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교우관계 만족도, 교수 만족도, 이론수업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은 임상실습수행 불안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머지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임상실습수행 불안, 이론수업 만족도, 대인관계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에 만족할수록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이 순조로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교생활 만족도 중 가장 낮은 점수(3.08점)를 보였으며, 간호사 역할 이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임상 실습환경이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임상 경험이 간호사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6].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역할 이행의 판단 기준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 능력, 즉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으로[25], 간호업무수행 동안의 불안감이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역량 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26]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과 관련된 불안 정도를 초점집단 면접이나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심도 있게 확인하고,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Newton과 McKenna가 실제 대형 병원에서의 실습조차 간호대학생들의 reality shock을 줄여주지 못하며 간호사로의 이행을 돕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27]과 Delaney가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점진적 노출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한 이행을 강조한 것[28]과 관련하여 현재 간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

결론

상실습의 실제 임상 현장의 반영 정도와 그에 따른 이행 수준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 직업적 이행을 위한 준비와 상관관계가 있고, 간호학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24,29,30]. 대인관계 능력도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실무 준비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13]. 반면 간호관리자들이 신규 간호사에게 부족한 점으로 손꼽는 대인관계능력이 5점 만점에 평균 3.75점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사로서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각하는 대인관계능력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된 후의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2.1%로 간호사 역할 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임상실습수행 불안,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이론수업 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간호사 이행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간호사 역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단변량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0.3점에서 0.4점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다중공선성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수락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편의 표집한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 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어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에 대한 평가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학제별, 지역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의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및 이론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간호사 역할 이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의료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과 관련해 불안감을 줄여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행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Lee S-K, Park SN, Jeong SH.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4):460-473. <http://dx.doi.org/10.1111/jkana.2012.18.4.460>
2. Kim S, Kim M, Shin J, Lee K, Lee S, Jeon J, et al. An analysis of educational philosophy and curriculum for baccalaureate programs of nursing education in Korea. *Korean Nurse*. 1986;25(1):48-56.
3.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2 Annual Report.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
4. Nash R, Lemcke P, Sacre S. Enhancing transition: An enhanced model of clinical placement for final year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09;29(1):48-56. <http://dx.doi.org/10.1016/j.nedt.2008.06.004>
5. Duchscher JE.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5):1103-1113.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8.04898.x>
6. Clare J, Australian University Teaching Committee (AUTC), Flinders University, University of Technology 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Learning outcomes and curriculum development in major discipline: Nursing: Final report for the Australian Universities Teaching Committee from a consortium of the Flinders University, Adelaid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Adelaide, South Australia: School of Nursing & Midwifery, Flinders University; 2002.

7. Wieland DM, Altmiller GM, Dorr MT, Wolf ZR. Clinical transition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during preceptored, pregraduation practicum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07;28(6):315-321.
8. Kaihlanen AM, Lakanmaa RL, Salminen L. The transition from nursing student to registered nurse: The mentor's possibilities to act as a supporter.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3;13(5):418-422. <http://dx.doi.org/10.1016/j.nepr.2013.01.001>
9. Sharif F, Masoumi S.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BMC Nursing*. 2005;4:6. <http://dx.doi.org/10.1186/1472-6955-4-6>
10. Casey K, Fink R, Krugman M, Propst J. The graduate nurse experience.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34(6):303-311.
11. Hoffart N, Waddell A, Young MB. A model of new nurse transi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11;27(6):334-343.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11.04.011>
12. Duchscher JE. Out in the real world: newly graduated nurses in acute-care speakout.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1;31(9):426-439.
13. Casey K, Fink R, Jaynes C, Campbell L, Cook P, Wilson V. Readiness for practice: the senior practicum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11;50(11):646-652. <http://dx.doi.org/10.3928/01484834-20110817-03>
14. Ellerton ML, Gregor F. A study of transition: the new nurse graduate at 3 months.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003;34(3):103-107;quiz 136-137.
15. Lopes Chaves EC, Simão TP, de Oliveira LS, de Souza IP, Lunes DH, Nogueira DA. Assessment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t a university in the South of Minas Gerais (Brazil). *Investigacion & Educacion en Enfermeria*. 2013;31(2):261-269.
16. Moore S, Lindquist S, Katz B. Home health nurses: stress, self-esteem, social intimacy, and job satisfaction. *Home Care Provider*. 1997;2(3):135-141.
17. Cooper C, Taft LB, Thelen M. Preparing for practice: Students' reflections on their final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5;21(5):293-302.
18. Doody O, Tuohy D, Deasy C. Final-year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role transition. *British Journal of Nursing*. 2012;21(11):684-688.
19.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20. Choi JA. The impact of self-awareness and self-esteem on counseling attitude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1996.
21. Guerney BG.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77.
22. Chang H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Seoul: Sungshin Womans University; 2006.
23. Kleehammer K, Hart AL, Keck JF.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0;29(4):183-187.
24. Goodrich RS. *Nurses' transition to academic nurse educator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2.
25. Wolff AC, Regan S, Pesut B, Black J. Ready for what?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new graduate nurses' readiness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2010;7(1):Article7. <http://dx.doi.org/10.2202/1548-923X.1827>
26. Mozingo J, Thomas S, Brooks E.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competency levels of graduating seniors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5;34(3):115-122.
27. Newton JM, McKenna L. The transitional journey through the graduate year: A focus group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7;44(7):1231-1237.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6.05.017>
28. Delaney C. Walking a fine line: graduate nurses' transition experiences during orientatio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3;42(10):437-443.
29.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6;20(2):163-179.
30.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177.